

정몽주의 사행시 연구

김덕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한문학 전공

kds2691@aks.ac.kr

- I. 머리말
- II. 여말선초 사행시와 포은 사행시
- III. 포은 사행시의 당대 영향과 후대 수용
- IV. 맺음말

I. 머리말

상춘 신흠은 포은을 떠올리며 “당시 끝까지 절개 지킨 사람이 몇 명이던가! 송도 벼슬아치가 한양 신하 되었지. 지금도 선죽교 길가에서, 선생을 말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¹⁾라 읊었다. 포은은 만고의 충신이자 절의의 표상이었고 이러한 평가는 현재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그의 성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포은집』을 읽은 지봉 이수광은 “시명(詩名)은 하손(何遜)과 두보(杜甫)요, 충의(忠義)는 문천상(文天祥)과 사방득(謝枋得)이지”²⁾라고 노래했다. 문학적 위상이 하손과 두보에 비견될 만큼 포은은 한시 제작에도 발군의 능력을 발휘했다. 시선집이나 시화집을 살펴보면 그의 대표작으로 칭해지는 작품 가운데 상당수가 사행 중에 지어졌다. 포은은 이국의 승경을 만끽하며 산천물색(山川物色)을 한시 속에 담아냈고 조선 문사는 포은의 성취와 국량을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³⁾

그간 포은 사행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 하나는 후대 시화와 비평 자료를 활용하여 포은 시편의 풍격과 그 미적 원리를 소급하는 것이고⁴⁾ 다른 하나는 주제론적 관점에서 포은의 내면 정서나 인물됨, 현실 인식, 역사 인식, 교유 양상 등을 도출하는 것이다.⁵⁾ 최근 들어 다채로운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 추세다. 예컨대 사행시에 나타난 자연현상과 내면 정서와의 상관성을 살피기도 했으며⁶⁾ 한시를

1) 『象村稿』 권19, 〈題圃隱集後〉 전구와 결구. “一節當時間幾人, 松都冠蓋漢都臣, 至今善竹橋邊路, 說着先生淚滿巾.”

2) 『芝峯集』 권4, 〈題圃隱集〉 함런. “詩名水部兼工部, 忠義文山與疊山.”

3) 『南圃集』 권14, 〈南郊日記〉. “午後披閱圃隱集, 歷覽其往來中國時詩什. 數千里道途, 山川物色, 盡入吟哦牙頰之間, 使後人追詠章句, 恍若親見神州之形勝. 其馳車往還之狀, 得句呻吟之象, 想形神思, 若在今日之目中, 而不覺已經三百年事也. 欽愴之餘, 仍念男兒生世, 事業至重, 上可以達天地無窮之理, 下可以跡萬里山川之勝, 前可以通千古已往之事, 後可以立萬代不朽之名. 若先生者, 俛仰今古, 其人有幾.”

4) 박영주, 「圃隱 鄭夢周 詩에 투영된 意象과 意境: 日本使行詩를 중심으로」, 『포은학연구』 10권(포은학회, 2012).

5) 최해정, 「포은 정몽주의 사행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김영수, 「麗末의 정세와 圃隱의 明·倭 使行詩 연구: 포은의 외교적 역량에 주안하여」, 『한문학보』 24권(우리한문학회, 2011); 김영은, 「圃隱 鄭夢周의 使行詩 研究」,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홍순석, 「어말선조 奉明使臣의 행적과 시」, 『포은학연구』 10권(포은학회, 2012).

6) 엄경흠, 「圃隱 鄭夢周의 中國 使行詩에 나타난 自然現象의 意象 變化」, 『포은학연구』

데이터베이스(DB)화한 뒤 사용 빈도가 높은 시어와 그 쓰임새를 고찰한 연구도 시도되었다.⁷⁾ 또한 문헌 조사와 현장 답사를 통해 포은의 남경(南京) 사행 노정을 정치하게 재구성한 논고가 보고되어 여말선초 대명(對明) 사행 연구에 요긴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⁸⁾

본고는 포은이 사행 중에 제작한 한시가 당대 사행 문학과 조선 문인의 작시(作詩)에 드리운 영향력을 고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먼저 여말선초 사행시의 현황 및 포은 사행시의 구성과 내력 등에 대해 약술하고, 포은 사행시가 여말선초에 활약했던 당대 문인에게 어느 정도 인지되었고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본다. 끝으로 시어와 시상의 운용 및 구법적인 측면에서 포은 사행시가 조선 한시에 수용되는 양상에 대해 검토해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포은 사행시에 대한 평가와 그 위상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여말선초 사행시와 포은 사행시

1. 대일(對日) 사행시

고려 말 대일관계는 여원(麗元) 연합군의 일본 원정 이후 단절되었다가 1366년(공민왕 15) 김룡(金龍)(9월)과 김일(金逸)(11월)을 파견하면서 재개되었다. 그리고 우왕(禑王) 연간에 나흥유(羅興儒, 1375), 안길상(安吉祥, 1377), 정몽주(鄭夢周, 1377), 이자용·한국주(李子庸·韓國柱, 1378), 윤사충(尹思忠, 1379) 등을 연이어 파견했다.⁹⁾ 이 가운데 현전하는 일본 사행 시록(詩錄)은 1377년 포은이 제작한 13수가 유일하거나 우리나라의 일본 사행 시록 중에서도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다.

포은보다 2년 먼저 일본에 다녀온 나흥유는 생시에 본인의 문집 간행을

9권(포은학회, 2012).

7) 홍순석, 「포은 한시의 시어와 그 쓰임새」, 『포은학연구』 1권(포은학회, 2007); 김병홍, 「포은 정몽주 사행시의 계량언어학적 접근」, 『포은학연구』 13권(포은학회, 2014).
8) 이승수, 「1386년 정몽주의 南京 사행, 路程과 詩境」, 『민족문화』 46권(한국고전번역원, 2015).
9) 엄경흠, 「麗末 日本通信使의 使行과 送詩」, 『동양한문학연구』 제25집(동양한문학회, 2007).

추진한 바 있다.¹⁰⁾ 여기에는 일본 사행 시 제작한 시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색은 그의 문집에 서문을 쓰면서 나홍유의 일본 사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금남(錦南)금성(錦城): 나주(羅州)의 남쪽 교외의 우수(迂叟) 나판서(羅判書)가 현릉(玄陵)공민왕의 지우를 받고 연구(聯句)로 시를 지어 3품 직질에 오르자 도성 안 사대부들이 부러워하고 찬탄하면서 모두 90편의 시를 지어주었는데 그 작품들이 제왕의 장서각에 소장된 시처럼 찬란하여 보는 이의 눈을 부시게 했다. 우수가 자칭하여 일본에 사행을 가서 사물을 접하며 감흥이 일어날 때마다 시로 표현한 것이 도합 250편이고, 일본 조계(曹溪)의 선승(禪僧)이 지어준 것도 20편이다. 사관(史官)이 그 원본을 구하여 베껴 써서 보관했고 대신(臺臣)도 보기를 청했으며 부중(府中)의 사대부들도 모두 목도하기를 원하여 다투어 구한 것이 어언 3년째인데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 시는 약간 권으로 정리했다고 한다.¹¹⁾

나홍유는 일본에서 경물을 접하며 감흥이 일어날 때마다 시편을 제작했는데 작품수가 250편에 이르렀고 일본 승려가 증정한 시편도 20편이나 되었다. 당시 사관(史官)이 그의 사행 시록을 베껴 적어 보관했으며 대신(臺臣)과 사대부들도 일람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나홍유의 일본 사행시가 당대 고려 조정 및 문단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킨 셈이다. 나홍유의 촉탁을 받고 서문을 제작한 목은은 그 즈음에 아래 시편을 읊조렸다.

白髮忘生產 늘그막에 생계 따윈 잊은 채
 朝昏只詠詩 아침저녁으로 시만 읊조릴 뿐.
 擊蒙多達宦 제자 중에 현달한 관원 많은데
 奉使蹈危機 몸소 사행 가서 위기를 밟았네.
 佳句儒林誦 아름다운 시구는 유림에서 전송하고
 高標海國知 고상한 풍도는 온 나라가 다 아는바.
 願公宜用力 바라건대 공은 의당 힘쓸지어다!
 叢錄近來稀 문집을 이룬 경우가 근래에 드무니.¹²⁾

10) 『靑莊館全書』 권57, 「蟲葉記[四]」. “東人亦有生時刻集者. 牧隱集曰, ‘羅判書將刊其中順堂集於尙州, 托書於僕, 以求速成. 甚矣, 其嗜詩而欲其傳於世也.’”

11) 『牧隱文藁』 권9, 〈中順堂集序〉. “錦南迂叟羅判書遇知玄陵, 聯句賦詩, 進秩三品, 國中士大夫欲觀讚詠, 凡得九十篇, 如群玉府璀璨耀目. 自請奉使日本, 遇物興懷, 輒形於詩, 凡二百五十篇. 日本曹溪禪者, 所贈又二十篇. 史氏索其本贖藏之, 臺臣又請觀之, 府中縉紳, 咸願目覩, 爭求之, 今三年矣, 而猶未已. [...] 詩釐爲若干卷云.”

12) 『牧隱詩藁』 권23, 〈羅判書將刊其中順堂集於尙州, 托書於僕, 以求速成. 甚矣, 其嗜詩而

“나관서(羅判書)가 상주(尙州)에서 『중순당집(中順堂集)』을 간행하기 위해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며 빨리 지어주기를 요구했다. 심하도다! 시를 좋아하여 세상에 전하고자 함이여!”라는 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나홍유는 본인의 문집 간행을 서둘렀다. 함련과 경련으로 추정컨대 일본 사행시가 문집 분량의 상당수를 차지한 듯하다. 성현(成俔)이 『용재총화』에서 우리나라 역대 문집을 소개하면서 ‘중순당집(中順堂集)’이라는 서명과 권수(卷數), 저자의 성명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까지는 전해진 것으로 여겨지나¹³⁾ 지금은 그 서명 자체가 국내외 고서목록에 보이지 않는다. 현전하는 나홍유의 작품은 <봉사일본(奉使日本)>이라는 칠언율시 한 수가 유일하다.¹⁴⁾

2. 대명(對明) 사행시

여말선초에 명나라 사행 시록을 남긴 주요 인물로는 포은 이외에 정도전, 이숭인, 권근, 이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목은(牧隱)의 문도이자 포은의 지우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표1-여말선초 명나라 사행 시록 주요 작가

작자	대명 사행 시기	직책	사행시 출처	비고
三峯 鄭道傳 (1342-1398)	1384년(우왕 10)	書狀官	권1-권2, 주석 “奉使雜錄”	聖節使 鄭夢周
	1390년(공민왕 2)	聖節使	권1-권2, 주석 “重奉使錄”	
	1392년(태조 1)	謝恩兼正朝使	권2, 주석 “後奉使雜錄”	
陶隱 李崇仁 (1347-1392)	1386년(우왕 12)	賀正使	권1-권3, 주석 “出奉使錄”	
	1388년(우왕 14)	賀節使		
陽村 權近 (1352-1409)	1389년(창왕 1)		권6, 「奉使錄」	國王 親朝 요청
	1396년(태조 5)		권1, 「應製詩」	表箋 문제 해명
雙梅堂 李詹 (1345-1405)	1400년(정종 2)	啓稟使	권2, 「觀光錄」	正使 河崙
	1402년(태종 2)	賀登極副使		

欲其傳於世也). 이덕무는 이 시의 경련과 미련을 인용하며 우리나라 인물 중에 생시에 문집을 간행한 사례로서 『중순당집』을 소개했다. 『靑莊館全書』 권57, 「盡業記4」, <生時刊行文集>.

13) 『慵齋叢話』 권8. “中順堂集一帙, 羅興儒所著.”

14) 『東文選』 권21.

이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시록은 권근의 「봉사록(奉使錄)」과 이첨의 「관광록(觀光錄)」이다. 「봉사록」에는 127제의 시편이 세세한 주석과 함께 시기 순으로 수록되어 있고 「관광록」에는 180여 제의 시편이 일정별로 차제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사행 일정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기에 용이하다. 이승인의 사행시도 “出使行錄”이라는 주석과 더불어 작품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47제의 사행시와 여타 시가 확연히 구분되나, 시체별로 분류된 탓에 정확히 어느 사행 때 지어진 작품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정도전의 사행시는 도합 10수에 불과한데 시체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제 아래에 “奉使雜錄”, “重奉使錄”, “後奉使雜錄”이라는 주석이 보인다. 이들의 사행은 명나라 성조(成祖)가 북경으로 천도한 142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사행 여정은 대동소이하다.

이상의 명나라 사행시 가운데 작시 공간이 중첩되는 곳은 봉래역(蓬萊驛), 봉래각(蓬萊閣), 용산역(龍山驛), 황산역(黃山驛), 제교역(諸橋驛), 내驛, 동양역(童陽驛), 한신묘(韓信墓), 표모총(漂母塚), 회음역(淮陰驛), 범광호(范光湖), 고우(高郵), 양주(楊州), 진주(眞州), 사문도(沙門島), 여순역(旅順驛), 금주(金州), 개주(蓋州) 등이다.¹⁵⁾ 조선 초기부터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경으로 향하는 육로 사행이 이뤄지면서 이들 지명은 작시 공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러다가 1621년 후금이 요동을 장악한 이래로 10여 년에 걸쳐 해로 사행이 재개되는데, 당시 사행을 다녀온 이민성(李民晟), 김덕승(金德承), 김상헌(金尙憲), 고경명(高敬命) 등의 작품에 이들 지명이 재등장한다.¹⁶⁾

3. 포은 사행시

포은은 총 일곱 번 사행을 떠났는데 일본에 다녀온 것이 한 번이고 나머지는 명나라로 향했다. 여섯 번의 명나라 사행 중에 세 번은 외교적 마찰 탓에 입경(入境)이 불허되었다. 남경(南京)까지 무사히 다녀온 명나라 사행은 1차 사행(1372년 3월-익년 7월), 5차 사행(1384년 7월-익년

15) 포은 사행시에만 등장하는 지명은 膠水縣, 高密縣, 日照縣, 王坊驛, 上莊驛, 寶應縣, 龍潭驛, 石橋鋪, 熊嶽 등이다.

16)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對明 인식의 변화, 한시 시풍의 변모 양상 등을 도출할 수 있다.

표2- 포은 奉命使行 개황

1차 사행-명나라	1372년(공민왕 21)	書狀官	
2차 사행-일본	1377년(우왕 3)	포로 쇄환	
3차 사행-명나라	1382년(우왕 8)	韓足金銀進貢使	入境 不許
4차 사행-명나라	1382년(우왕 8)	講諭使	入境 不許
5차 사행-명나라	1384년(우왕 10)	賀聖節使	
6차 사행-명나라	1386년(우왕 12)	朝貢 감면 등 요청	
7차 사행-명나라	1387년(우왕 13)	朝聘 요청	入境 不許

4월), 6차 사행(1386년 2월-동년 7월)이다. 일본 사행은 1377년 9월에 이루어졌는데 익년 7월에 포로로 잡혀갔던 윤명(尹明), 안우세(安遇世) 등 수백 명을 데리고 귀국했다.¹⁷⁾

포은 사행시는 『포은집』 권1에 편차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사행시는 세 차례 사행 때 제작된 것으로 명나라 사행이 두 차례(1차, 6차)이고 나머지 한 번은 일본 사행(2차)이다.¹⁸⁾ 『포은집』 권1에는 도합 120제의 한시가 실려 있다. 118번째부터 120번째까지는 일본에서 제작한 것이다. 118번째 한시는 제목이 〈洪武丁巳, 奉使日本作〉인데 하나의 시제 아래 11수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¹⁹⁾ 119번째와 120번째 작품은 시제가 〈遊觀音寺〉, 〈再遊是寺〉로서 두 편만 온전한 제목이 전한다. 여하튼 일본에서 제작한 시편은 총 13수다.

표3- 포은 사행시 착간 사례

일련번호	시제	시기	비고
104	〈瓜州〉 [壬子四月]	1372년 4월	1차 사행-명나라
98	〈壬子十月十二日發京師 宿鎮江府丹徒驛〉	1372년 10월	1차 사행-명나라
118	〈洪武丁巳 奉使日本作〉	1377년	2차 사행-일본
1	〈(洪武)丙寅三月十九日, 過海宿登州公館, 郭通事·金押馬船阻風未至, 因留待〉	1386년 3월	6차 사행-명나라

17) 포은이 일본 사행의 사신으로 선발된 과정과 활약상 등은 〈圃隱先生集年譜攷異〉에 자세하다.

18) 5차 사행(1384) 때 제작된 시편은 현전하지 않는다.

19) 제목이 누락된 채 〈洪武丁巳, 奉使日本作〉이라는 시제 아래 묶인 11편의 작품은 추후 『東文選』이나 『海行摠載』 등에 수록될 때 〈偶題〉, 〈旅懷〉, 〈旅寓〉 등의 시제가 임의대로 붙여졌다. 특히 〈偶題〉라는 제목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다.

120제의 사행시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보면, 수록 순서와 창작 시기가 착안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洪武>丙寅三月十九日, 過海宿登州公館, 郭通事·金押馬船阻風未至, 因留待라는 시는 시기적으로 가장 나중인 1386년에 지어진 것인데 권두(卷頭)에 차제되어 있다. 그리고 1372년 4월에 지어진 <瓜州>라는 작품은 동년 10월에 지어진 <壬子十月十二日發京師, 宿鎮江府丹徒驛>보다 뒷부분에 실려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늦지만 시편이 비교적 온전하게 전하는 6차 사행 시록은 권두에 수록하고, 일본 사행시는 명나라 사행시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므로 맨 뒤에 따로 편차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1372년 1차 사행 시편은 순서가 정연하지 않으므로, 면밀한 교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포은의 아들 정종성(鄭宗誠)은 부친의 유문(遺文)을 수집·편차하여 1439년 초간본을 간행했고²⁰⁾ 현손(玄孫) 정세신(鄭世臣)은 신계현령(新溪縣令)으로 부임하여 1533년 재차 문집을 간행했다. 그 후 1914년에 이르기까지 『포은집』은 10여 차례에 걸쳐 경향(京鄕)에서 간행되었다.²¹⁾ 초간본 간행 시 아들 정종성이 찬술한 발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선인께서 저술한 시문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으면 짓자마자 바로 버렸다. 간간이 수록한 것도 적지 않으나 불행히 가화(家禍)를 만나 거의 다 유실되어 지금 남은 것은 백에 한둘에 불과하다. 일본에 사행 가서 지은 것은 숙부인 사재령(司宰令) 정도(鄭蹈)가 초록해놓은 13수를 얻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일실되었다. 또한 평소 제작한 시편 중에서 제가(諸家)가 소장한 것과 홍무 병인년(1386) 명나라에 사신 갔을 때의 시록(詩錄)은 모두 문인인 평정공(平定公) 함부림(咸傅霖)이 한데 모아 보내주었다. 나 역시 약간 수를 얻어서 총 303수가 되었다. 선인께서 네 차례 중국에 갈 때마다 시편을 지었는데 병인년 시록만 서장관 문렬공(文烈公) 한상질(韓尙質)이 손수 작성한 기록 덕분에 다행히 유실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전하지 않는다.²²⁾

20) 초간본은 현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集部』(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에 의하면 일본 蓮左文庫에 초간본 『포은집』이 소장되어 있다.

21) 한국고전번역원DB, 『포은집』 해제 참조.

22) 『圃隱集』(1903년 卞州 玉山齋 刊本) 권2, <圃隱先生詩集跋>. “吾先人所著詩文, 不爲不多. 然自以不滿其意, 旋作旋棄, 而間有收錄亦且不少, 不幸遭家之故, 遺失殆盡, 今所存者, 特百中之一二耳. 其使日本所作, 只得叔父司宰令蹈所抄錄十三首而已, 餘皆逸. 又其平日所作爲諸家所藏者及洪武丙寅奉使大明行錄, 皆門人咸平定公傅霖所鳩集而歸之者也. 宗誠又得若干首, 摠三百三首. 先人四赴京師, 俱有所作, 丙寅之錄, 幸賴書狀官韓文烈公尙質手錄而不失, 餘則不傳焉.”

앞부분에서 포은 시문이 희소한 까닭을 언급한 뒤 사행 시록의 현황과 소종래에 대해 기술했다. 포은이 일본에서 제작한 한시는 막내 동생 정도(鄭蹈)가 초록해놓은 13수를 제외하고는 이미 세종 연간에 일실된 상태였다.²³⁾ 그리고 중국에 갈 때마다 시편을 제작했으나 1386년 6차 사행 시록만 온전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실되었다. 그나마 6차 사행 시록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서장관 한상질(韓尙質)이 손수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포은의 문인인 함부림(咸傅霖)이 수습하여 정중 성에게 보내준 것이다. 1386년 포은은 봉래역(蓬萊驛)을 지나다가 “다행히 함께 온 사람 중에 한생(韓生)이란 자가 있어, 내가 시 지을 때마다 화답하는구나(同來幸有韓生在, 每作新詩和我歌)”²⁴⁾라는 시구를 한상질에게 주었다. 서장관으로 동행하면서 포은의 모든 시편에 화답했던 인연으로 한상질이 포은의 시편을 간직한 것이다.

고려 말 일본이나 중국 사행은 해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위험하기 그지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은은 고단한 여정에서 “매양 시편을 짓는 게 일과인 터라, 사행쯤은 봄철 유람으로 여긴다네(每寫詩篇爲日課, 聊將使節當春遊)”²⁵⁾라 읊조릴 정도로 하루도 빠짐없이 시편 제작에 몰두했다. 역관에서 잠을 잘 때조차 베갯머리에서 시상이 떠오르면 등불을 밝힌 채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²⁶⁾ “여정에서 봄바람 부니 미친 듯 흥이 나고, 아름다운 경치 볼 때마다 술잔을 기울였지. 집으로 돌아갈 때 돈을 다 썼다고 부끄러워 말라! 새로 지은 시가 비단 주머니에 가득하니(客路春風發興狂, 每逢佳處即傾觴. 還家莫愧黃金盡, 剩得新詩滿錦囊)”²⁷⁾라는 시편은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며 나그네의 시흥을 쏟아내는 포은의 모습과 작시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여실히 보여준다.

23) 玉莪堂 韓致翁(1765-1814)이 편찬한 『海東釋史』 권43, 「藝文志」, 〈本國書目〉에 『포은집』뿐만 아니라 포은의 ‘圃隱奉使藁’라는 서명이 보이는데, 일본 학자 마쓰시타 게린(松下見林), (1637-1702)이 찬술한 『異稱日本傳』을 인용하며 “정몽주는 홍무 정사년(1377)에 우리 일본에 사신으로 왔다가 『포은봉사고』를 지었는데 좋은 작품이 많다. 또 『포은집』이 있는데 본 적은 없다”라 했다. 포은의 일본 사행 시록인 ‘포은봉사고’가 단독 서명으로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쓰시타 게린이 이 책을 친견한 것으로 보아 『포은봉사고』가 17세기까지 일본에 유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4) 『圃隱集』 권1, 〈蓬萊驛, 示韓書狀 [名尙質]〉 미련.

25) 『圃隱集』 권1, 〈黃山驛路上〉 경련.

26) 『圃隱集』 권1, 〈客夜在丘西驛〉. “客夜人誰問, 沉吟欲二更. 詩從枕上得, 燈在壁間明. 默默思前事, 遙遙計去程. 俄然睡一覺, 僮僕報鷄鳴.”

27) 『圃隱集』 권1, 〈飲酒〉.

표4- 포은 한시의 주요 시선집 수록 현황

시형	한시 제목	『靑丘風雅』	『箕雅』	『大東詩選』
오언고시	長守驛寄益陽守李容		○	
칠언고시	江南柳		○	○
	常州除夜呈諸書狀官 ■	○		
오언율시	客夜在丘西驛 ■		○	○
	洪武丁巳奉使日本作 ■■	○	○	○
	洪武丁巳奉使日本作 ■■	○	○	○
오언배율	送禮部主事林實還京師	○		
	賀李秀才取登第還鄉三十韻		○	
칠언율시	多景樓贈李淳 ■		○	○
	大倉九月贈工部主事胡璉 ■		○	○
	登全州望景臺		○	○
	洪武丁巳奉使日本作 ■■	○	○	○
	洪武丁巳奉使日本作 ■■		○	○
	送周典簿倬還朝		○	○
	定州重九韓相命賦		○	○
	重九日題益陽守李容明遠樓		○	○
오언절구	春興		○	○
칠언절구	江南曲 ■	○	○	○
	江南憶陶隱 ■	○		
	祭金元帥得培		○	○
	寄李正言		○	○
	讀易·其二	○		
	復州食櫻桃 ■	○	○	○
	楊子江 ■	○		
	入直中書門下省醉賦	○		
	征婦怨·其一 ■	○	○	○
	征婦怨·其二 ■	○		
	題驪興樓·其二		○	○

※ ■: 중국 사행시, ■■: 일본 사행시

포은의 시편은 300여 수 남짓하다. 표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시대 3종의 시선집²⁸⁾에 수록된 것이 28수이고 이 가운데 사행시가 14수를 차지한다. 선초의 김종직(金宗直)과 17세기의 남용익(南龍翼), 일제강점기의 장지연(張志淵)의 조감(藻鑑)을 모두 충족시킨 작품은 총 6수인데

28) 필자는 시기적 안배를 고려하여 조선 전기와 후기, 한말 이후를 대표하는 시선집으로 『청구풍야』와 『기야』, 『대동시선』을 임의로 선택한 뒤 수록 작품수를 비교했다.

공히 사행 여정에서 지은 것이다. 사행시가 여타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듯하다.²⁹⁾

Ⅲ. 포은 사행시의 당대 영향과 후대 수용

1. 포은 사행시의 당대 영향

간송(澗松) 조임도(趙任道, 1585-1664)는 포은의 삶을 묘사하며 “우리나라 유종(儒宗)이자 사직(社稷)의 신하, 사대와 교린에 수고가 많았네. 무너지는 큰 집을 한 손으로 지탱하기 어려워, 칼날을 밟고 부질없이 하나의 인(仁)을 이루었지³⁰⁾라 했다. 두 번째 구에서 말한 사대와 교린은 중국과 일본 사행을 가리킨다. 그만큼 양국 사행은 포은 삶의 궤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아무리 저명한 인물이라도 생시에 문집을 간행하기 어려웠고, 본인의 저술을 정서만 해도 ‘생문집(生文集)’ 운운하며 비웃었으며, 당사자도 본인 저술에 제목을 붙이지 못한 채 ‘만초(漫艸)’, ‘만록(漫錄)’ 등으로 지칭했다.³¹⁾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포은의 사행시가 여말선초 문인이나 당대 봉명사신에게 어느 정도 인지되고 얼마만큼 읽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포은과 동시대에 활약한 인물 중에 일본 사행록을 남긴 자가 없으므로 대명(對明) 사행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이승인의 경우

이승인(李崇仁)은 1387년 봄, 하정사(賀正使)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

29) 허균은 『惺叟詩話』에서 포은의 작품 중에 詩想과 措語가 공교롭고 정치한 시구를 2수 뽑았고, 호방하고 웅장한 시풍을 발산하는 시구를 3수 뽑았는데, 이 가운데 4수가 명나라, 혹은 일본 사행 중에 지은 것이다.

30) 『澗松集』 권2, 〈東賢十六詠〉. “東國儒宗社稷臣, 劬勞事大又交隣. 難將隻手扶傾廈, 踏刃空成一箇仁.” [右圃隱○姓鄭, 諱夢周, 字達可. 丁丑生, 麗末人.]

31) 『靑莊館全書』 권57, 「盡業記[四]」. “中國之俗, 著書刊行當世, 不必待身後入梓. 我國則雖宏儒, 不惟不得刊行於生時, 若或精寫冊子, 則人必嘲笑曰, ‘此生文集也.’ 亦或不敢題某集, 必曰漫艸·漫錄, 此陋也非謙也.”

는 길에 고우호(高郵湖)에 배를 대고 고국에 있는 벗을 생각하며 아래 시를 지었다.

湖名聞已久 호수 이름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今夜宿湖邊 오늘 밤 호숫가에서 묵게 되었네.
 星月相凌亂 별빛과 달빛이 어지럽게 뒤섞이고
 波濤正渺然 일렁이는 파도는 정말 끝이 없구나.
 故人應好在 벗님들이야 응당 잘 있겠지만
 孤客不成眠 외로운 나그네는 잠 못 이루네.
 何日梅窓底 언제나 매화 핀 창 아래에서
 團樂誦此篇 단란하게 이 시편을 읊조릴까?³²⁾

시제 안에 작시 공간과 네 벗의 호칭을 적은 뒤 운수(雲樹)의 그리움을 토로했다. 네 벗은 포은과 염정수(廉廷秀), 하륜(河崙), 정도전이다. 고우호의 명성과 주변 풍광, 객수를 드러내다가 마지막 연에서 귀국 후 벗들과 이 작품을 단란하게 읊조릴 날을 기약하고 있다.³³⁾ 이어서 이승인은 고향 집에 있는 두 아들 차약(次若)과 차견(次鶯)에 대한 애뜻한 심사를 표달했다.

次鶯初學語 차견은 말 배우기 시작하고
 次若解看詩 차약은 시를 볼 줄 안다네.
 索乳常隨母 차견은 젖을 찾아 늘 어미를 따르고
 摳衣已得師 차약은 옷자락 치켜들고 스승을 따르지.
 經時成遠別 철을 넘기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無日不相思 하루도 그리워하지 않는 날이 없구나.
 老大恩情重 늙은 아버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他年汝自知 언젠가 너희도 자연히 알게 되리라.³⁴⁾

타국에서 어린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정(父情)을 산문적 구법 속에

32) 『陶隱集』 권2, 〈舟次高郵湖, 憶圃隱·萱庭·浩亭·三峯〉.

33) 이승인은 〈東關至密水途中, 奉懷圃隱·三峯〉(『陶隱集』 권2) 미련에서도 “그동안 좋은 시구들 제법 얻었으니, 특별히 벗들을 위해 전해야지(向來頗得句, 端爲故人傳)”라 읊조렸다. 사행 시 제작한 시편을 귀국 후 벗들과 공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작품으로 〈舟行自高郵湖, 過范光·白馬二湖, 奉懷東亭·圃隱二位先生〉(『陶隱集』 권3)이 보인다.

34) 『陶隱集』 권2, 〈憶次若·次鶯〉.

애잔하게 표현했다. 어미 곁에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젓먹이와 제법 의지한 모습으로 스승을 좇으며 시를 배우는 큰아들의 모습이 눈에 밟히는 듯하다.

이승인이 사행 중에 벗과 자식을 그리워하는 시편을 제작한 데에는 포은의 기존 사행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1386년 6차 사행 때 포은은 금성역에서 송경(松京)의 여러 벗을 생각하며 아래 시를 지었다.

夫人美如玉 옥처럼 아름다운 친구들
 第宅在松京 시는 집이 송경에 있다네.
 爲祿曾同仕 녹봉을 위해 함께 벼슬했고
 題詩每共評 시 지을 때마다 함께 논평했지.
 夢回燈吐艷 잠에서 깨니 등불은 붉은 꽃 토하고
 更盡鼓添聲 밤이 다하자 북소리 더 울리누나.
 欵枕金城驛 금성역에서 베개에 기대노라니
 誰知此夜情 오늘밤 이내 심사를 뉘 알리오!³⁵⁾

시제(詩題)의 투식이 도은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³⁶⁾ 새 작품을 지을 때마다 함께 논평했다는 함련의 술회도 단란하게 모여 이 시편을 읊조리겠다는 이승인의 사상과 다르지 않다. 아래 작품은 포은이 두 아들을 생각하며 지은 시다.

百念俱灰滅 온갖 염려 다 사라져도
 關心只兩兒 마음에 걸리는 건 두 아이뿐.
 未離慈母養 어미 보살핌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已誦古人詩 벌써부터 옛사람의 시를 외운다네.
 積善吾何有 내가 무슨 선행을 쌓은 게 있으랴!
 揚名汝自期 입신양명은 너희 스스로 기약해야지.
 秣思衰老日 생각건대 내가 노쇠한 날에야
 及見長成時 장성한 너희를 볼 수 있으리라.³⁷⁾

35) 『圃隱集』 권1, 〈金城驛, 懷松京諸友〉.

36) 『圃隱集』 권1에 〈江南, 憶陶隱〉, 〈有懷李陶隱·鄭三峯·李通村三君子〉, 〈楊州竹西亭, 懷松京諸友〉 등도 수록되어 있다.

37) 『圃隱集』 권1, 〈憶宗誠·宗本兩兒〉.

온갖 상념이 다 사라져도 자식 생각만큼은 떨칠 수 없다. 늦둥이 아들에 대한 자랑과 그리움이 이송인 작품의 정조와 흡사하거나와 〈憶宗誠·宗本兩兒〉란 제목도 이송인의 〈憶次若·次騫〉과 비슷하다. 포은이 사행 시 벗과 자식을 떠올리며 지은 시편이 지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었고, 그것이 이송인의 제재 착안과 실제 작시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포은이 사행을 마치고 귀국한 것은 1386년 7월이고 이송인이 사행을 떠난 것은 동년 12월이다. 이 네댓 달 사이에 이송인이 포은의 시편을 처음 접했을 것이다.

(2) 권근의 경우

권근(權近)은 1389년 하정사(賀正使)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제교역에 도착하여 아래 시편을 써 내려갔다.

泰運逢何易	태평성대 만나기가 어찌 쉬우랴!
周觀亦得難	중국 땅 구경도 얻기 어려운 법.
舟行徐竟地	서주와 연주 땅은 배를 타고 다녔고
道過魯齊山	노나라와 제나라 산은 육로로 지났지.
海國歸期近	고향 돌아갈 기일이 가까워지니
郵亭醉夢殘	역참에서 술 취해 자다가 깨어나네.
遠遊償素志	멀리 노닐겠다는 평소 뜻 이뤘으니
不用貴長閑	어찌 긴 한가로움을 귀하게 여기랴! ³⁸⁾

태평성대를 만나 사신으로 임명되었기에 평소 품었던 중국 유람의 포부를 이룰 수 있었다고 가슴 벅찬 어조로 말하고 있다. 권근은 ‘難’, ‘山’, ‘殘’, ‘閑’으로 이어지는 평성 강운(剛韻)을 운각으로 삼았다. 〈次圃隱鄭贊成韻〉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포은 시에 차운한 것이다. 포은의 원운시(原韻詩)는 다음과 같다.

積雪經寒凜	쌓인 눈의 추위를 겪으며
狂濤涉險難	성난 파도의 험난함을 건넜지.
東來今幾日	동쪽에서 떠난 지 며칠 쯤인가!
南去漸無山	남쪽으로 갈수록 차츰 산이 없구나.
官柳綠相倚	관아의 푸른 버들은 서로 의지하고

38) 『陽村集』 권6, 「奉使錄」, 〈次圃隱鄭贊成韻〉.

野花紅未殘 들판의 붉은 꽃은 아직 시들지 않았네.
 書生亦榮矣 서생 또한 영광이로다!
 獻馬向天閑 말을 바치러 천자 계신 곳으로 향하니.³⁹⁾

한겨울 노정의 험난함과 지형의 변화, 남방의 풍광을 차례대로 기술한 뒤, 말을 세공(歲貢)하기 위해 남경을 방문하는 것이 서생의 영광이라고 했다. 이 시는 1386년 남경으로 향하다가 체교역에서 하룻밤 묵으며 여관 벽에 써놓은 것이다. 3년이 지난 1389년까지 포은의 필적이 벽 위에 남아 있었는지, 혹은 권근이 평소 포은의 시편을 숙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포은의 사행시가 당대 문인에게 일정한 영향을 드리운 점은 분명하다.

(3) 정도전의 경우

정도전(鄭道傳)은 1384년 서장관으로서 성절사 포은을 따라 남경에 다녀온 적이 있다. 2년 후인 1386년 포은이 세 번째 남경 사행을 마치고 나서 연로에서 지은 작품으로 「포은봉사고(圃隱奉使藁)」를 엮자, 정도전은 이 시고를 읽고 서문을 찬술했다.⁴⁰⁾ 서두에서 포은의 학문 과정과 성취를 상술한 뒤 일본 사행 시 활약상을 언급했다. 그리고 명나라 사행 시편에 대해 정도전 자신의 조감을 피력했는데 이것을 선별적으로 정리하면 표5와 같다.

정도전은 여느 시화 못지않게 개별 작품의 함의와 포은의 속내를 간명하게 정리했다.⁴¹⁾ 포은의 시편을 숙독하고 그 미감을 체득한 이후에야 가능한 미시적인 비평이다. 전술했듯이 정도전, 이첨, 권근, 이승인 등도 사행을 다녀와 모두 시록을 엮었고 그것이 각자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평소 벗들과 시주(詩酒)의 회합을 가지며 저마다 제작한 시편을 보여주고 서로 평론하던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포은봉사고」도 상당히 폭넓게 읽혔을 것이다.

「포은봉사고」는 「강남기행시고(江南紀行詩藁)」라는 제목으로도 일컬어졌다. 포은의 스승인 이색은 제자의 사행 시고를 열람하고 발문을

39) 『圃隱集』 권1, 〈書諸橋驛壁上〉.

40) 『三峯集』 권3, 〈圃隱奉使稿序〉 [丙寅].

41) 대부분의 詩題가 축약되거나 변형된 형태로 씌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정도전의 비평을 통해 여말선초 문인이 견지했던 한시 비평관의 일단을 추론할 수 있다.

써주었다. 천하를 유람하며 호방한 뜻을 배양하려 했던 소싯적 포부를 발문 모두에서 기술한 뒤 명나라 사행을 떠나는 문사들을 향해 선망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서 포은의 「강남기행시고」에 대해 이렇게 논했다.

지금 정오재(鄭五宰)(필자주: 정몽주)의 「강남행고(江南行藁)」에 수록된 〈전횡(田橫)〉⁴²⁾, 〈한신(韓信)〉⁴³⁾, 〈이적(李績)〉⁴⁴⁾ 등의 시편을 읽어보니 내 마음을 몹시 감동시킨다. 〈진교유웅용시(陳教諭熊鷹詩)〉⁴⁵⁾는 너무 호방해서 화답할 수 없을 듯하다. 명나라의 한가한 기상을 노래하고 우리나라가 향모하는 정성을 진솔한 작품은 이른바 '시사(詩史)'다. 그 밖에 사물을 읊조리고 회포를 펼친 잡편(雜篇)들도 곱씹을수록 뒷맛이 있다. 나는 이에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며 말한다. “종지(宗之)(필자주: 정도전)가 서장관이 되어 공(公)을 쫓았을 때도 귀국한 뒤에 연로에서 지은 시문의 발문을 요청했지. 공이 또한 내 말을 구하는 것을 비루하게 여기지 않는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도은(陶隱)이 돌아오면 필시 나에게 시편을 보여줄 것이네. 내가 문을 닫고 누워 있어도 강남(江南) 땅이 모두 내 목전에 있으니, 어찌 굳이 내 육신을 수고롭게 한 연후에 내 뜻을 호쾌하게 만들겠는가!” 이에 즐겁게 이 글을 쓰는 바이다.⁴⁶⁾

이색은 포은의 「강남행고(江南行藁)」에 실린 일부 작품을 논평했다. 물론 「강남행고」는 「강남기행시고」를 지칭한다. 시편이 발산하는 호방한 기풍을 극찬하기도 하고, 제자의 작품을 '시사(詩史)'라 일컬으며 시성(詩聖) 두보(杜甫)에 비견하기도 했다. 위 발문에 의하면 정도전도 1384년 사행 시 제작한 시문(詩文)을 스승에게 가져와 발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1386년 당시 하정사(賀正使)로서 중국 땅을 밟고 있을 제자 이승인도 귀국하자마자 연로에서 지은 작품을 자신에게 보여줄 것이라 했다. 사행 과정에서 찬술된 시편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주변 인적 관계망을 통해 공시적으로 향유되고 확산된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당대 문단과 정계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42) 〈田橫〉: 〈田橫島〉.

43) 〈韓信〉: 〈韓信墓〉.

44) 〈李績〉: 〈李勣戰處〉.

45) 〈陳教諭熊鷹詩〉: 〈儻陽驛壁畫鷹熊, 歌用陳教諭韻〉 [江陰侯大人教畫工畫鷹熊, 因命沐陽縣學泐江陳惠賦詩].

46) 『圃隱集』附錄, 〈書江南紀行詩藁後〉 [李穡]. “今讀鄭五宰江南行藁(田橫)·〈韓信〉·〈李績〉等詩, 感吾之心多矣. 〈陳教諭熊鷹詩〉, 豪放不似和韻. 至於歌詠大朝閒暇之氣像, 陳述小邦傾嚮之精誠, 所謂詩史也. 其餘詠物遺興雜篇, 咀嚼有餘味. 予於是躍然自幸, 乃曰, ‘宗之從公爲書狀官, 歸而求跋其在塗詩文, 公又不鄙微子言. 年前年後陶隱歸, 必不斷相示. 吾雖閉門高卧, 江南一片, 盡在吾目中矣. 何必勞吾身, 然後快吾志耶!’ 於是樂爲之書.” 『목은집』에는 이 글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표5- 〈포은봉사고서〉 소재 정도전 한시 비평

詩題	정도전의 평론 내용
〈渡海宿登州公館〉 ⁴⁷⁾	渤海를 건너 蓬萊閣에 올라, 요동의 광막한 들을 바라보고, 바다의 우람한 파도를 보니, 흥취가 일어나 언어로 표출하는 것을 스스로 금할 수 없다. ⁴⁸⁾
〈蓬萊驛示韓書狀 [尙質)]	
〈客夜聞鶯〉 ⁴⁹⁾ 等詩	철따라 변하는 사물을 보며 먼 길 떠나움을 느꼈다. ⁵⁰⁾
〈潼陽驛壁鷹態圖歌〉 ⁵¹⁾	느림하여 생기가 있다. ⁵²⁾
〈憶宗誠·宗本〉 ⁵³⁾	자상하게 염려하는 마음이 지극하다. ⁵⁴⁾
〈憶陶隱·三峯·遁村〉 ⁵⁵⁾	친구 사이의 정분이 돈독하다. ⁵⁶⁾
〈望北固山悼金若齋〉 ⁵⁷⁾	죽고 시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니 후한 도리이다. ⁵⁸⁾
〈弔韓信〉 ⁵⁹⁾	晦翁의 말을 주장하며 그가 무죄인 것을 밝혔다. ⁶⁰⁾
〈詠漂母〉 ⁶¹⁾	황금으로 명성과 비뚤었으니 보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⁶²⁾
〈過卽墨〉 ⁶³⁾	樂毅가 먼저 燕惠王을 저버린 것을 책망했는데 은미한 것을 드러내고 감취진 것을 밝히는 뜻이다. ⁶⁴⁾
〈皇都〉 ⁶⁵⁾ 四首	천자가 작고 먼 나라를 품고 사랑하는 인자함을 선양하면서, 功臣과 將相의 부귀와 평안의 영화로움, 성곽과 궁실의 크고 아름다움, 인물의 변화함을 갖추어 담았으니, 훗날 시를 채집하는 자가 이것을 史官에게 아뢴다면, 필시 명나라 雅樂이 될 것이다. ⁶⁶⁾
〈入京〉	
〈出京〉	

47) 〈渡海宿登州公館〉: 〈三月十九日, 過海宿登州公館, 郭通事·金押馬船阻風未至, 因留待〉.

48) “渡渤海登蓬萊閣, 望遼野之廣邈, 觀海濤之洶湧, 興懷敘言, 不能自已.”

49) 〈客夜聞鶯〉: 〈四月初一日, 高密縣聞鶯〉.

50) “覽時物之變, 感行役之遠.”

51) 〈潼陽驛壁鷹態圖歌〉: 〈潼陽驛壁畫鷹熊, 歌用陳教諭韻〉 [江陰侯大人教畫工畫鷹熊, 因命沐陽縣學湖江陳惠賦詩].

52) “凜凜有生意.”

53) 〈憶宗誠·宗本〉: 〈憶宗誠·宗本兩兒〉.

54) “極慈祥之念.”

55) 〈憶陶隱·三峯·遁村〉: 〈有懷李陶隱·鄭三峯·李遁村三君子〉.

56) “篤友愛之情.”

57) 〈望北固山悼金若齋〉: 〈楊子渡, 望北固山悼金若齋〉 [洪武癸丑, 與先生同登北固山多景樓].

58) “不以存亡易其心, 厚之道也.”

59) 〈弔韓信〉: 〈弔韓墓〉.

60) “主晦翁以明其非罪.”

61) 〈詠漂母〉: 〈漂母塚〉.

62) “以金易名, 不爲無報.”

63) 〈過卽墨〉: 〈卽墨縣〉.

64) “責樂毅先負惠王, 微顯闡幽之義也.”

65) 〈皇都〉: 〈皇都〉 [四首].

66) “鋪張聖天子字小懷遠之仁, 功臣將相富貴尊安之榮·與夫城郭宮室之巨麗·人物之繁華, 無不備載, 採詩者以此陳於太史氏, 其爲皇明之雅無疑矣.”

때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4) 이침의 경우

쌍매당(雙梅堂) 이침(李詹)은 1402년(태종 2) 11월에 하등극사(賀登極使) 하륜(河崙)을 따라 중국 사행을 나섰다. 그는 사문도(沙門島)에 정박하고 내주로 향하는 길에 시 〈용산역의 달가(達可) 시에 차운하다〉를 지었다.

萬家桑棗暮雲稠	모든 집에는 뽕나무, 대추나무요 저녁 구름 짙은데
薺麥青青已輟耰	냉이와 보리 새파랗고 곰방메 작업 이미 마쳤네.
雨雪載塗驚歲晚	진눈깨비가 길에 쌓인 걸 보니 벌써 세밀이구나!
風波渡海覺生浮	풍파 속에 바다를 건너며 덧없는 인생 깨닫노라.
一身出處皆天賦	일신의 출처는 모두 하늘이 정해준 것이거늘
兩字功名足浪遊	공명이란 두 글자 때문에 이렇게 유랑하는구나.
欲達寸誠煩視聽	작은 정성 아뢰어 귀와 눈을 번거롭게 헤드려야지
天王設社更垂旒	천자께서 귀막이 하고 면류관 술 드리우셨을 테니. ⁶⁷⁾

저물녘 이국의 농촌 풍경과 세밀의 나그네 회포를 그린 뒤 출처와 공명에 대한 소회를 읊조렸으며, 사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시편을 마무리했다. 이 작품은 시제에서 표방한 것처럼 포은의 〈용산역〉 시에 차운한 것이 아니다. 위 시의 운자는 평성(平聲) 우운(尤韻)이지만 〈용산역〉 시는 평성 진운(眞韻)이다. 이침이 차운한 포은의 작품은 아래의 〈黃山驛路上〉이다.

麥穗青青桑葉稠	보리 싹은 새파랗고 뽕잎은 빼곡한데
沃饒千里接鋤耰	기름진 천 리 땅에 호미와 곰방메 이어졌네.
地連北海波聲壯	땅이 북해로 이어지니 파도소리 웅장하고
山擁東秦翠色浮	산이 동진을 에워싸니 비췌빛이 떠 있구나.
每寫詩篇爲日課	매양 시편을 짓는 게 일과인 터라
聊將使節當春遊	사행쯤은 봄철 유람으로 여긴다네.
此行又是朝天去	이번 행보도 천자께 조회하러 가는 게니
明日丹墀拜冕旒	내일이면 궁궐에서 황제를 배알하리라.

이침의 작품에 비해 호장(豪壯)한 기세가 두드러지고, 정경(情景)의

67) 『雙梅堂篋藏集』 권2, 『觀光錄』, 〈次龍山驛達可韻〉.

서술과 시상의 승접도 훨씬 긴밀하다. 이첨 시제에 오류가 보이는 까닭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두 시편의 수련과 미련에 구현된 시적 공간과 시상 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첨은 틀림없이 포은의 작품을 염두에 두고 시상을 전개했다.

이첨은 동관역(東關驛)에서 왕방역(王坊驛)으로 향하는 도중에 “천지에 몸이 붙어 있는 듯하고, 세월은 흘러 한 해가 저물러 하네. 나그네에게 먹일 물고기는 있는데, 고향 편지 부칠 기러기는 없구나(天地身如寄, 星霜歲欲除. 有魚供旅食, 無雁付家書)”⁶⁸⁾라 노래하며 세모의 나그네 심사를 표출했다. 이 작품은 당대 사행문학에 끼친 포은 사행시의 영향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포은이 일본 사행 중에 제작한 〈洪武丁巳, 奉使日本作〉·其五의 경련은 다음과 같다.

海近有魚供旅食 가까운 바다에는 나그네에게 먹일 물고기가 있는데
天長無雁寄鄉書 까마득한 하늘에는 고향 편지 부칠 기러기가 없구나.

하늘이 드넓거니와 바다에 인접한 지역이라 밥상에 생선은 자주 올라오는데, 정작 고향으로 편지를 전해줄 한 쌍의 잉어와 기러기는 없다는 뜻이다. 서신을 의미하는 잉어와 기러기 고사를 작시의 공간적 특성에 맞춰 절묘하게 구사했다. 이첨이 읊조린 “나그네에게 먹일 물고기는 있는데, 고향 편지 부칠 기러기는 없구나”는 포은의 시구에서 앞의 두 글자를 떼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표절이라기보다는 절친한 벗이자 이미 고인이 된 포은의 시구를 의도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앞 연의 “천지에 몸이 붙어 있는 듯하고”란 표현도 포은이 읊조린 “배가 달리니 몸이 붙어 있는 듯하고(舟走身如寄)”⁶⁹⁾와 “덧없는 세상에 몸이 붙어 있는 듯하고(浮世身如寄)”⁷⁰⁾를 변용한 것이다.

2. 포은 사행시의 후대 수용

(1) 기실(紀實)의 작법

조선 문인은 포은의 사행시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짐필재 김종직은

68) 『雙梅堂叢藏集』 권2, 「觀光錄」, 〈王坊路上〉 합련과 경련.

69) 『圃隱集』 권1, 〈高郵湖舟中〉 경련 상구.

70) 『圃隱集』 권1, 〈李蘭店路上〉 경련 상구.

포은의 일본 사행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찍이 『포은집』에 실린 패가대(霸家臺) 시를 읽고 나서 내심 감탄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 작품은 풍토를 기록하고 음청(陰晴)을 서술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지조와 절개가 광대하고 탁월하여 보통 사람이 쉽게 엿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⁷¹⁾

패가대는 일본 지명으로 포은이 사신 갔던 곳이다. 김종직의 견해에 따르면 포은 일본 사행시의 기술상의 특징은 풍토를 기록하고 음청(陰晴)을 서술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풍토란 풍속과 습관, 지리, 환경, 인정까지 두루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물론 작품 속에 지조와 절개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작법상의 문제는 아니다. 대개 송시(宋詩)를 모범으로 삼는 시인들이 경계한 것은 과장된 경물 묘사와 공소한 감정 유출이다. 포은의 작시는 현실과 괴리된 정경 묘사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기실(紀實)이란 실제 정황을 기록하는 것이다. 건문한 것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은 사행 문학의 보편적 특징이다.⁷²⁾ 포은 이후에 일본 사행록을 본격적으로 작성한 인물은 신숙주다. 그는 1443년(세종 25)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뒤 1471년 왕명으로 일본의 정치·외교·사회·풍속·지리 등을 종합·정리하여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를 지었거니와 요동을 열세 번이나 방문했고 명나라에 두 차례 사신으로 다녀왔다. 그 역시 사행과 유학을 통해 국위를 유람하며 이국의 산수 풍광이나 경계, 풍토의 차이까지 남김없이 시문 속에 담아내고자 했다.⁷³⁾ 이에 신숙주는 포은과 함께 일본 사행의 상징적 인물로 여겨졌다.⁷⁴⁾

71) 『佔畢齋文集』 권2, 〈跋金君節對馬島諸詩後〉. “余嘗讀圃隱集霸家臺之詩, 竊嘆以爲斯作, 不過記風土, 敘陰晴而已, 而其志節恢恢拳拳, 有非恒人所易窺測.”

72) 예컨대 李詹은 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山東回還, 記所見聞〉(『雙梅堂陰藏集』 권2)을 지었는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려는 의도가 시제 속에 드러나 있다. 李宜顯(1669-1745)도 사행 시 지은 시편에서 “여행에서 보고 들은 것을 모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게 시인의 일이니, 붓 잡고서 그런대로 짧은 노래 짓노라(撫實紀行詩人事, 攬筆聊作一短歌)”라 읊조린 바 있다. 『陶谷集』 권3, 〈通遠堡〉.

73) 任元濬, 〈保閑齋集序〉. “公嘗傳命日域, 游學遼陽, 奉使中原, 冥搜幽討, 海岳之崇深·風土之殊勝, 既括盡而無餘. 其疏宕奇氣, 不在子長之下, 宜其見高而量益弘, 聞博而才益贍.”

74) 李山海의 〈贈副使慶正(暹)〉(『鵝溪遺稿』 권4) 경련에 “황금이라 백발은 오천 정몽주의 시구요, 관옥이라 매조는 범옹 신숙주의 시구라네(黃金白髮鳥川句, 板屋梅梢泛老詩)”가 보인다.

계곡(谿谷) 장유(張維)는 종사관에 임명되어 일본으로 떠나는 신영길(辛榮吉)에게 아래 한시를 써주었다.

積水茫茫不可窮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九州之外好觀風 구주 바깥에서 풍속을 잘 관찰하시게.
殊邦奉使誰堪道 일본에 간 사신 중에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前有文忠後浦翁 앞에는 문충(文忠)이요 뒤에는 포옹(浦翁)일세.⁷⁵⁾

전반부에서 일본 사행을 통해 관풍찰속(觀風察俗)할 것을 당부했고 후반부에서 일본에 다녀온 역대 인물 가운데 문충공(文忠公) 정몽주와 추포(秋浦) 황신(黃愼)을 최고의 사신으로 평가했다. 중세 지식인에게 외국 사행은 견문과 국량을 확장하고 이국의 풍토를 살필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다.

아래 작품은 포은의 〈洪武丁巳, 奉使日本作〉이라는 시체에 네 번째로 실려 있는 시다.

平生南與北 평생을 남북으로 다니니
心事轉蹉跎 심사가 갈수록 어긋나네.
故國海西岸 고국 땅은 바다 서쪽 언덕인데
孤舟天一涯 외로운 배는 하늘 한쪽 끝이네.
梅窓春色早 매화 핀 창가에는 봄빛이 이르거늘
板屋雨聲多 판잣집에는 빗소리가 많기도 하다.
獨坐消長日 홀로 앉아 긴 날을 보내려니
那堪苦憶家 괴로운 집 생각 어이 견딜까!

이 시의 경련은 기실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1643년 통신부사(通信副使)로서 일본에 간 용주(龍洲) 조정(趙綱)은 일본 산성주(山城州)의 객관에서 포은을 떠올리며 “판잣집 빗소리를 지금 비로소 경험했나니, 오천의 시율은 입신의 경지에 들었구나(板屋雨聲今始驗, 鳥川詩律入神功)”⁷⁶⁾라고 시상을 일으켰다. 오천⁷⁷⁾, 즉 포은의 작사가 입신의 경지에 들었다고 극찬하면서 그 근거로 “판잣집 빗소리를 지금 비로소 경험했나니”를

75) 『谿谷集』 권33, 〈送辛榮吉從事奉使日本〉·其二.

76) 『龍洲遺稿』 권23, 「東槎錄」, 〈山城館憶鳥川先生〉 수련.

77) 鳥川은 포은을 지칭한 것으로 그의 본관인 延日의 이칭이다.

들었다. 포은의 위 시구가 명구로 회자된 것은 이국의 특징적 풍광을 사실적으로 포착하되, 평이한 구법 속에 공감각적 시상까지 두루 담아냈기 때문이다.⁷⁸⁾ 기와집과 초가집에 익숙한 조선인에게 판자 지붕을 때리는 요란한 빗소리는 낯선 체험일 수밖에 없다. 조경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독자도 포은의 위 시구를 숙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시를 지은 것이다.

조경 이전에도 포은의 사실적 묘사를 칭찬한 시편이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추탄(楸灘) 오윤겸(吳允謙)은 대마도 역관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읊조렸다.

板屋雨聲圍隱詩 판자집이라 빗소리 많다는 포은의 시
平生曾詠未曾知 평생토록 읊조려도 그 의미 모르겠더니
昨來蠻館逢眞境 어제 오랑개 역관에 와서 진경을 만난 뒤
始覺當時卽此時 당시가 바로 이때란 것을 비로소 깨달았네.⁷⁹⁾

포은이 노래한 ‘板屋雨聲多’의 의미를 평생토록 이해하지 못하다가, 대마도 역관에서 동일한 상황을 체험한 뒤, 어떤 경계를 그려낸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오윤겸은 ‘眞境’을 경험함으로써 포은이 구사한 기실의 실체를 이해한 것이다. 1636년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임광(任統)이 “잠자리에 들어 막 삼경에 이르자 물을 붓듯 비가 내렸는데, 포은의 ‘판자집에는 빗소리가 많기도 하다’라는 시구가 바로 이것이다”⁸⁰⁾라 기술한 것도 포은 시구를 실제 체험을 통해 징험한 실례다. 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이 읊조린 “매화 핀 창외의 빼어난 시구는 천 사람이 읊조리고, 선죽교에서 피 흘린 충신의 혼은 만고에 슬프구나(梅窓秀句千人誦, 竹血忠魂萬古哀)⁸¹⁾는 포은의 시구가 얼마나 애송되었는지 잘 보여준다.⁸²⁾ 심지어

78) 曹仲은 이 시구와 “나그네는 돌아가기도 전에 제비를 만나고, 살구꽃이 이제 막 졌는데 복사꽃도 지는구나(客子未歸逢燕子, 杏花纔落又桃花)”를 工緻한 표현의 전형으로 소개했다. 후자는 명나라에서 지은 <蓬萊驛, 示韓書狀>(『포은집』 권1)의 경험으로 조선과 중국의 기후 차이를 경물 묘사에 투영한 것이다.

79) 『楸灘集』 권1, <馬島館中聽雨>.

80) 任統, 『丙子日本日記』 11월 16일조. “就歇纔及三更, 雨下如注, 圃翁板屋雨聲多之句, 卽是矣.”

81) 『壺谷集』 권11, 「扶桑錄上」, <過霸家臺> 경련.

82) 李民成의 <送鄭汝秀侍郎奉使日本>(『敬亭集』 권9)은 포은 후손이 일본으로 사행을 떠날 때 지은 것인데 경련과 미련에서 “板屋雨聲驚遠夢, 霸臺秋色候歸潮. 要看姓死迎鳥鄭, 前後留名北斗高”라 했다. 그리고 李景奭은 <謹贈舍伯日本下价之行序>(『白軒集』

어 일본인조차 이 시를 일본의 절창이라고 여겼다고 한다.⁸³⁾

이에 일본에 시행을 가면 포은의 ‘板屋雨聲多’ 다섯 글자로 분운(分韻)하여 시를 짓는 전통까지 만들어졌다. 남용익은 풍랑으로 남도(藍島)에 머무는 동안 장맛비를 만나 종일토록 홀로 누워 있었는데 우연히 포은의 ‘板屋雨聲多’를 읊조리다가 분운하여 5수의 오언율시를 제작한 바 있다.⁸⁴⁾ 이후 조태억(趙泰億, 1675-1728)도 이 다섯 글자를 운각(韻脚)으로 삼아 칠언고시 5수를 지었다.⁸⁵⁾

19세기 소단의 우이를 잡은 자하(紫霞) 신위(申緯)는 우리나라 역대 시인을 평론한 〈동인론시(東人論詩)〉에서 포은을 이렇게 묘사했다.

眞傳理學冠東邦 이학의 적통으로 동방의 으뜸이요
節義堂堂百世降 당당한 절의는 백세토록 내려오지.
不謂詞章兼卓犖 시편 또한 출중하다 말하지 않더니!
雨聲板屋早梅窓 관자집의 빗소리, 창가의 이른 매화.⁸⁶⁾

이학(理學)의 적통이자 절의(節義)의 표상임을 강조한 뒤, 비범한 작시 능력까지 겸비했음을 말했다. 그리고 그 실례로서 “관자집의 빗소리, 창가의 이른 매화”를 예시했는데 이 시구는 포은의 “梅窓春色早, 板屋雨聲多”를 축약한 것이다. 포은이 착안한 특정 사상과 시어는 조선 문사에게 부단히 영향을 끼친 것이다.

포은은 이국의 풍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기실의 작법으로 그것을 형상화하려 했다. 다음에 인용한 시구는 〈洪武丁巳, 奉使日本作〉·其十一의 수련과 함련이다.

奉使遊桑域 사명 받들고 일본을 노닐면서
從人問土風 사람들에게 풍토를 물었노라.
染牙方是貴 이빨을 물들여야 바야흐로 귀한 것이고
脫履始爲恭 신을 벗어야 비로소 공손한 모습이라네.

권30)에서 “板屋雨聲, 想圃隱之峻節, 蛟龍窟上, 憶秋浦之孤忠”이라 했다.

83) 『小華詩評』. “頃歲倭僧能詩者, 語我國使臣曰, 圃隱‘梅窓春色早, 板屋雨聲多’之句, 爲日本絶唱云.”

84) 『호곡집』 권11, 「扶桑錄」, 〈阻風藍島, 且逢霖雨, 終日獨臥, 偶吟鄭文忠板屋雨聲多之句, 分以爲韻, 得五字五句五篇〉.

85) 『謙齋集』 권7, 「東槎錄[中]」, 〈以圃隱先生詩板屋雨聲多分韻, 得古詩七言 [五首]〉.

86) 『警修堂全藁』 책17, 「北禪院續藁二」 [辛卯五月], 〈東人論詩〉·其四.

수련 하구에서 표현한 ‘問土風’은 관풍찰속(觀風察俗)의 한 방편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이국의 습속 중에서 이채로운 점을 묘사한 것이 함련이다. 보란 듯이 이빨을 까맣게 물들인 채 맨발로 예를 표하는 일본인의 모습이 자못 낯설게 느껴진다. 다음 작품은 〈洪武丁巳, 奉使日本作〉·其七과 其八의 정련이다.

- ① 斑衣想自秦童化 아롱진 옷은 진나라 동자의 영향인 듯하고
染齒曾將越俗通 검게 물들인 이빨은 월나라 풍속과 통하지.
- ② 行人脫履邀尊長 행인은 신을 벗어 높은 어른을 맞이하고
志士磨刀報世讐 지사는 칼을 갈아 선대의 원수 갚는다네.

이수광은 위 시구와 “梅窓春色早, 板屋雨聲多”를 기실의 사례로 설명한 바 있다.⁸⁷⁾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이빨을 검게 물들인 모습, 맨발로 깎듯이 어른을 맞이하고 조상의 복수를 위해 칼을 가는 풍속은 효(孝)와 예(禮)를 중시했던 조선 문사에게 일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①의 영향을 받은 시편을 예거해보면 아래와 같다.

- ①-1 文身傳越俗 문신은 월나라 풍속에서 전해지고
開國自秦童 개국은 진나라 동자 때 시작되었지.⁸⁸⁾
- ①-2 山川定鰲背 산천은 자라 등에서 정해지고
民物自秦童 백성은 진나라 동자 때 시작되었지.⁸⁹⁾
- ①-3 國自秦童有 나라는 진나라 동자 때부터 있었고
波通漢武時 파도는 한나라 무제 시대와 통하지.⁹⁰⁾

위 시구는 임수간(任守幹), 김창업(金昌業), 이기지(李器之)의 작품으로 직접 일본에 가서 짓거나 일본 사행을 떠나는 자를 전송하며 지은 것이다.

87) 『芝峯類說』. “鄭圃隱使日本詩曰, ‘斑衣想自秦童化, 染齒曾將越俗通’, ‘行人脫履邀尊長, 志士磨刀報世讐’, ‘梅窓春色早, 板屋雨聲多’ 皆紀實也.”

88) 任守幹의 『東槎日記』(1711, 속중 37).

89) 金昌業(1658-1721), 『老稼齋集』 권1, 〈贈成琬日本之行〉.

90) 李器之(1690-1722), 『一菴集』 권1, 〈送族兄美伯 [邦彥] 日本從事之行〉 5수 중 其四, 수련.

포은이 구사한 ‘越俗’, ‘秦童’, ‘自’, ‘通’ 등의 시어를 활용하여 일본 풍속과 개국의 연원을 소개하고 있다. 포은과 거의 동시대에 활약한 양촌(陽村) 권근(權近)도 “아롱진 옷과 검게 물들인 이빨과는 사귀기 어렵다네(斑衣染齒難交相)”⁹¹⁾라 읊조린 바 있는데, 이 표현 역시 포은의 시편을 착안하여 지은 것임은 채연의 여지가 없다.

아래 작품은 작법적인 측면에서 포은의 ②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듯하다.

②-1 脫履知敬長 신 벗는 게 어른 공경인 줄 알고
 同席不避父 아비를 피하지 않은 채 같이 앉고
 椎髻齒多染 뽀족한 상투에 이빨을 검게 물들이고
 合掌背微偃 합장할 때는 등을 약간 구부리고
 睚眦生忿狠 눈을 흘기며 분노와 흥포함 드러내고
 慄悍輕殺掠 사나워서 살육과 노략질 가볍게 여기고
 發語毋嗷嗷 말을 시작할 때는 모노모노 소리를 내고
 相力喜躍躍 힘을 때는 약약 소리 내는 걸 좋아하네.⁹²⁾

②-2 遠客腰刀拜 먼 데서 온 손님에게 칼을 찬 채 절하고
 尊人脫履迎 신을 벗은 채 높은 사람을 맞이하고
 投錢祈佛福 돈을 던져 부처에게 복을 빌고
 灼骨覘神禎 뼈를 태워 귀신의 길운 엿보네.⁹³⁾

②-1은 김흔(金訢)이 1479년 서장관으로 사행을 가서 대마도(對馬島)에서 견문한 것을 기술한 것이고, ②-2는 임상덕(林象德)이 1711년 통신사로 일본에 가는 조태역(趙泰億)을 전송하며 지은 시다. 위 시편도 일본인의 습속을 다양하게 묘사했는데, 포은이 포착한 장면 이외에 일본인의 예법과 기질, 발어사와 의성어⁹⁴⁾까지 세세하게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포은의 기실(紀實) 작법을 수용하되 그 외연을 더욱 확장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특징적인 풍속을 묘사한 포은의 사행시는 조선 문인에게 폭넓게 읽히며 일본과 관련된 실제 작시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91) 『陽村集』 권10, 〈題李使君[殷]詩卷, 得相字〉中.

92) 金訢, 『顏樂堂集』 권1, 〈詠對馬島〉中.

93) 林象德(1683-1719), 『老村集』 권1, 〈寄別吏部侍郎趙大年奉使之日本〉[辛卯] 中.

94) 작품 끝에 “倭訓母嗷嗷, 發語辭, 躍躍用力聲”이라는 주석이 보인다.

(2) 호방한 시풍

포은이 중국 사행 때 다경루(多景樓)에서 지은 작품은 단연 명편으로 꼽힌다.⁹⁵⁾ 아래 인용하겠지만 이 시의 수련에서 “평소 기른 호연지기를 펼치고 싶다면, 반드시 감로사 누각 앞에 와봐야지”라 읊조릴 만큼 사행을 통해 장부의 기개를 한껏 발산했다. 포은은 명나라 관원에게 “사나이는 평소 멀리 노니는 것을 사랑하는 법이니, 어찌 타향에 머뭇을 탄식하리오!”⁹⁶⁾라 운을 떼더니, “이따금 성곽 남쪽 저자에서 술을 마시는데, 내 호기가 오히려 중국 전역에 가득하구나”⁹⁷⁾라 호언하기도 했다. 포은의 호방한 기질을 십분 대변한다. 이와 같은 호기로운 언표의 이면에는 사신의 가장 중요한 능력인 전대(專對)와 작시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 있다. 포은의 평가에 의하면 당시 사행에 동행했던 대여섯 명의 종사관은 모두 재주가 탁월한 연소한 호걸이었다.⁹⁸⁾

포은 사행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호방한 시풍이다. 적암(適庵) 조신(曹伸)은 여말부터 당대까지의 한시 명구를 엄선한 뒤 일곱 가지 풍격으로 분류했는데 혼후(渾厚), 침통(沈痛), 공치(工緻), 호장(豪壯), 웅기(雄奇), 한적(閑適), 고담(枯淡)이 그것이다. 일곱 가지 풍격에 모두 해당하는 인물은 목은 이색이고, 포은의 시풍은 공치와 호장에 해당한다.⁹⁹⁾ 호장한 풍격에 속하는 포은의 시편이 세 수인데 그중에 두 수가 명나라 사행 때 지은 것이다. 다경루에서 지은 시를 보겠다.

欲展平生氣浩然 평소 기른 호연지기 펼치고 싶다면
須來甘露寺樓前 반드시 감로사 누각 앞에 와봐야지.
甕城畫角斜陽裏 철옹성 빨피리 소리는 석양 속이요
瓜浦歸帆細雨邊 과포포 돌아가는 돛단배는 가랑비 곁이라.
古鑊尙留梁歲月 옛 가마솥에는 아직도 양나라 세월 머물고

95) 춘정 변계량은 이 시를 통해 포은의 호방하고 걸출한 기상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東人詩話』. “洪武年間，鄭圃隱入朝，又登多景樓有詩，[···] 春亭下先生嘗曰，圃老豪邁峻壯，橫放傑出氣象，槩於是詩見之。”

96) 『圃隱集』 권1, 〈大倉九月，贈工部主事胡璉〉 수련. “男子平生愛遠遊，異鄉胡乃歎淹留。”

97) 『圃隱集』 권1, 〈大倉九月，贈工部主事胡璉〉 미련. “時來飲酒城南市，豪氣猶能塞九州。”

98) 『圃隱集』 권1, 〈常州除夜，呈諸書狀官〉 중. “同來使臣五六輩，年少才高盡豪傑。”

99) 『詩話叢林』上, 『謏聞瑣錄』. 이 밖에 남용익도 고려와 조선을 대표하는 시인을 나열하면서 개별 작자의 특징을 두 글자 평어로 정의했는데 포은의 경우는 ‘豪暢’이다. 『壺谷詩話』. “余以臆見，妄論勝國與本朝之詩曰，[···] 鄭圃隱夢周之豪暢 …….” 이수광과 홍만중이 『지봉유설』과 『소화시평』에서 포은의 시풍을 각각 ‘豪邁’, ‘豪放’이라 정의한 것도 그 궤를 함께한다.

高軒直壓楚山川 높은 누대는 초나라 산천을 곧장 짓누르네.
 登臨半日逢僧話 올라가 만나질 동안 중을 만나 얘기하사니
 忘却東韓路八千 팔천 리 길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네.¹⁰⁰⁾

수련에서 상·하구가 하나의 의미 구조로 연결되는 연면구를 활용하여 호쾌한 분위기를 가중시켰는데, 백거이가 〈江樓早秋〉에서 구사했던 ‘欲, 須’의 구법을 차용했다. 함련에서는 술어를 생략한 채 명사구로 처리함으로써 회화성을 극대화시키되, 청각적 미감 또한 간과하지 않았다. 경련에서는 조자(助字)인 ‘尙’과 ‘直’을 통해 누대의 오랜 역사와 높은 지세를 잘 표현했다. 특히 경련과 함련의 공교로운 대우가 인상적이다.

수련의 ‘平生氣浩然’은 포은이 창출한 표현으로 중국에서조차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 17세기에 백호(白湖) 윤희(尹鑄)와 시암(時庵) 조상우(趙相禹) 등이 이 표현을 수용하여 구사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포은의 영향이 감지된다.¹⁰¹⁾ 정조(正祖)의 사위인 홍한주(洪翰周)가 읊조린 “너른 백사장의 저녁 피리 소리는 석양 속이요, 아득한 포구의 외로운 돛단배는 가랑비 곁이라(平沙晚笛斜陽裏, 極浦孤帆細雨邊)¹⁰²⁾도 포은의 시편을 읽은 흔적이다. 그리고 임호(林湖) 박수검(朴守儉)이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된 권한공(權漢功)의 〈甘露寺多景樓〉에 차운하여 노래한 “바람이 범종 소리 이끌고 어디로 떨어지나? 해질녘 고포에 배를 띄우네(風引鐘聲何處落, 夕陽瓜浦泛行舟)와 “절에는 양 무제 때의 옛 가마솔이 있다(寺有梁武時古鑊)”란 주석 역시 포은 작품을 숙독한 자취다.¹⁰³⁾

아래 시는 포은이 일본 사행 때 지은 작품이다.

水國春光動 섬나라에 봄빛이 일렁이는데
 天涯客未行 하늘 끝 나그네는 떠나지 못하네.
 草連千里綠 풀은 천 리까지 파랗게 이어지고
 月共兩鄉明 달은 두 고장 모두를 환히 비추네.
 遊說黃金盡 유세하느라 황금은 다 썼고
 思歸白髮生 돌아갈 생각에 백발이 돋누나.

100) 『圃隱集』 권1, 〈多景樓贈季潭〉.

101) 『白湖集』 권2, 〈贈李祖然〉 수련. “善養平生氣浩然, 崆峒將欲倚秋蓮.”; 『時庵集』 권1, 〈遺意〉 전구와 결구. “人皆可以爲堯舜, 養得平生氣浩然.”

102) 『海翁詩藁』 권1, 〈翌日上趙上舍亭樹〉 함련. ‘角’을 ‘笛’으로, ‘帆’을 ‘驪’으로 환치했다.

103) 『林湖集』 권2, 〈次潤州甘露寺多景樓古韻〉 미련. “風引鐘聲何處落, 夕陽瓜浦泛行舟.” [寺有梁武時古鑊].

男兒四方志 대장부가 천하에 뜻을 둔 것은
不獨爲功名 오직 공명 때문만은 아니라네.¹⁰⁴⁾

봄 풍광과 달빛은 이국과 고향이 매한가지이므로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수련 상구의 ‘春光’은 함련 상구로 연결되고, 수련 하구의 ‘客未歸’는 함련 하구와 경련으로 승접된다. 함련의 대우가 자연스러우면 서도 매우 공교롭다.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고향이 그리지만 귀국하지 못하는 까닭은 사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경련은 당나라 왕유(王維)의 “타향살이에 황금을 다 썼고, 집으로 돌아가니 백발이 새로 돋았네(爲客黃金盡, 還家白髮新)”¹⁰⁵⁾를 점화한 것이다. 뒤의 세 글자는 그대로 둔 채 ‘爲客’을 ‘遊說’로, ‘還家’를 ‘思歸’로 변용함으로써 낙방한 과거 응시생의 좌절을 직무에 충실한 사신의 향수로 절묘하게 치환했다. ‘遊說’와 ‘思歸’는 외형적으로 온전한 대우를 이루지만 ‘유세’는 두 개의 동사가 병렬된 형태이고 ‘사귀’는 동사와 목적어의 구조다. 따라서 차자대(借字對)라고 할 수 있다. 미련에서는 포은의 호방한 기질을 대변하듯 나그네의 객수에 안주하지 않고 천하에 뜻을 둔 장부의 포부로 수렴했다. 점필재 김종직은 미련에 대해 “지조와 절개가 우뚝한 것이 노중련(魯仲連)을 능가할 만하다”라고 고평했다.¹⁰⁶⁾ 미련 상구는 두보의 〈前出塞九首〉·其九, “대장부가 천하에 뜻을 두었으니, 어찌 곤궁한 상황에서 의리 지키는 것을 사양하리오!(丈夫四方志, 安可辭困窮)”에서 가져왔으나, 하구에서 그 목적을 부분 부정의 구법으로 공명과 연결함으로써 대장부의 충정과 욕망을 모두 포괄했다.

위 시는 조선 문인에게 널리 읽히며 실제 작시에 적극 활용되었다. 함련의 “草連千里綠, 月共兩鄉明”을 간재(良齋) 최연(崔演, 1503-1549)은 “雲連千里白, 月共兩鄉明”¹⁰⁷⁾으로 변용했고, 농포(農圃) 정문부(鄭文孚)는 “雲連千里色, 月共兩鄉愁”¹⁰⁸⁾로 변용했으며,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은 “人分千里遠, 月共兩鄉明”¹⁰⁹⁾으로 변용했다.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시어

104) 〈洪武丁巳, 奉使日本作〉·其三.

105) 『王摩詰文集』 권9, 〈送丘爲落第歸江東〉 함련.

106) 『圃隱集』附錄, 〈撫錄〉. “奉使日本五言律‘不獨爲功名’下, 金宗直云, ‘志節落落, 可陵魯連.’”

107) 『良齋集』 권9, 〈宿狄江邊〉 함련.

108) 『農圃集』 권1, 〈杏山〉 함련.

109) 『愼獨齋遺稿』 권2, 「次龜峯詩」, 〈次獨坐松樓〉 수련.

몇 글자만 교체했음을 일견에 알 수 있다. 최연 작품은 1548년 동지사(冬至使)로서 국경을 넘기 직전에 지은 것이고, 정문부 작품은 1610년 사은부사(謝恩副使)로서 중국 행산(杏山)에서 지은 것이며, 김집 작품은 유배 생활을 전전하던 송익필의 시편에 차운한 것이다.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가 회답사로 일본에 가는 이섬(李暹)을 전송하며 읊조린 “황금과 백발은 오천(烏川)의 시구네(黃金白髮烏川句)”¹¹⁰⁾는 포은 시의 경련을 압축한 표현으로 포은 한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제작한 것이다. 이 밖에 성종 연간의 대표적 훈구파 문인인 안락당(安樂堂) 김흔은 가형(家兄)에게 띄운 시에서 “외로운 객관에서 놀라 잠에서 깨니, 쇠잔한 등불이 밝았다 어두워지네. 대장부가 천하에 뜻을 둔 것은, 오직 공명 때문만은 아니라네(孤館夢初驚, 殘燈滅又明. 丈夫四方志, 不獨爲功名)”¹¹¹⁾라 읊었다. 포은의 “男兒四方志, 不獨爲功名”에서 ‘男兒’를 ‘丈夫’로 바꿨을 뿐이다. 다음 작품도 일본 사행 시 제작한 것이다. 서포 김만중은 포은의 시문을 호매준결(豪邁峻潔)이라 정의한 뒤 이 작품을 인용했다.¹¹²⁾

弊盡貂裘志未伸	담비 갖옷 다 해지도록 뜻을 퍼지 못했으니
羞將寸舌比蘇秦	세 치 혀를 가지고 소진 노릇 하기 부끄럽네.
張騫查上天連海	장건(張騫)의 뗏목 위로 하늘이 바다에 잇닿았는데
徐福祠前草自春	서복사(徐福祠) 앞에는 풀이 절로 봄이구나.
眼爲感時垂泣易	시절을 느끼기 때문에 눈물이 쉬 흐르고
身因許國遠遊頻	나라에 허락했기 때문에 자주 멀리 다니네.
故園手種新楊柳	고향에 손수 심은 새 버드나무는
應向東風待主人	응당 봄바람 향해 주인을 기다리겠지. ¹¹³⁾

소진(蘇秦)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소임과 처지를 말하고 나서 원근의 경물을 묘사했다. 한 무제 때 서역으로 사행을 떠난 장건(張騫)의 뗏목과 진나라 때 불사약을 찾아 일본에 온 서복(徐福)의 사당으로 대우를 맞춘 것이 절묘하기 그지없거니와¹¹⁴⁾ 경물 묘사 속에 머나먼 노정과 삶의

110) 『鵝溪遺稿』 권4, 〈贈副使慶正 [暹]〉 경련 상구.

111) 『顏樂堂集』 권2, 〈奉寄家兄〉·其二.

112) 『西浦集』 권6, 『西浦日錄』, 〈詩話〉. “鄭公夢周, 字達可, 延日人. 仕高麗, 官至門下侍中. 好學不倦, 精研性理之學, 深有所得, 爲東方理學之祖. [...] 所著詩文, 豪邁峻潔, 號圃隱. [...] 奉使日本詩曰 ……”

113) 『圃隱集』 권1, 〈洪武丁巳, 奉使日本作〉·其六.

114) 고유명사를 詩料로써 구사하되 대우를 강구하고 독특한 미감까지 가미하는 것은 풍부

무상함을 잘 대비시켰다. 포은이 이 시를 지은 뒤 ‘장건’과 ‘서복사’는 매거하기 어려울 만큼 일본 사행시의 주요 시료(詩料)가 되었다.¹¹⁵⁾ 석담(石潭) 이윤우(李潤雨, 1569-1634)는 일본으로 떠나는 이경직을 전송하며 “살마주는 응당 조수가 빠졌을 것이요, 서복사 앞은 잎이 한창 가을이겠지. 포은 정 선생이 떠난 뒤, 네 번째 정사년에 그대가 다시 노니는구려(薩摩洲上潮應落, 徐福祠前葉正秋. 圃隱鄭先生去後, 四回丁巳子重遊)”¹¹⁶⁾라 노래했다. 일개 시어뿐만 아니라 포은의 정사년 사행 자체가 시료로써 활용된 것이다.

위 시의 경련과 미련에서는 불안한 국제 정세와 자신의 충정을 읊조린 뒤,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작품을 마무리했다. 경련은 ‘一飯不忘君’의 대명사인 두보를 연상케 하는데, 지극히 산문적인 구법 속에 우국충정을 표출하여 시상이 또렷하게 각인된다.¹¹⁷⁾ 예컨대 상·하구를 직역하면 “눈은 시절을 느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쉽다”와 “몸은 나라에 허락했기 때문에 멀리 노니는 것이 빈번하다”이다. 특히 하구는 후대 문인의 작시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 학식과 문학적 감수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예컨대 포은이 〈皇都四首〉(『圃隱集』 권1)에서 읊조린 “태산이 솟돌 되고 황하가 떠가 되도록 맹세한 것은 徐丞相이요, 천지를 경륜한 것은 李太師라네(山河帶礪徐丞相, 天地經綸李太師)”는 명나라 개국공신인 丞相 徐達과 太師 李善長을 시어로 활용하면서 웅혼하고 전중한 미감을 창출했 거니와 대우 또한 절묘하다. 博川 李沃(1641-1698)은 포은의 이 시구를 점화하여 “한 시대를 중흥시킨 것은 柳丞相이요, 삼한을 통합한 것은 權太師라네(中興一代柳丞相, 統合三韓權太師)”라 읊기도 했다. 유송상은 西厓 柳成龍이고 권태사는 고려 태조를 도운 權幸이다. 『博泉集』 권5, 「繡衣錄」, 〈安東數三生, 飲賦燕子樓川上, 余適過至, 要余共約, 仍次其韻〉 경련.

115) 포은 사행 후 40여 년이 지난 1420년에 宋希璟은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봄날 사명 받들고 해 뜨는 곳으로 향하니, 장건의 뗏목 위로 바다가 하늘에 잇닿았네(奉使春風向日邊, 張騫槎上海連天)”라 읊었다. ‘海’와 ‘天’의 위치만 바꿨을 뿐이다. 『日本行錄』 2월 5일조, 〈次東萊東軒韻〉. 그리고 김종직은 “해운대 아래에는 뜬 하늘이 잠겨 있고, 서복사 앞에는 낙엽 진 나무에 바람이 부네(海雲臺下浮天浸, 徐福祠前落木風)”라 노래한 바 있다. 『佔畢齋集』 권6, 〈又三首〉·其二 기구와 승구.

116) 『石潭集』 권1, 〈送李從事尙古 [景稷] 奉使日本〉 경련과 미련.

117) 巖棲 曹兢燮(1873-1933)은 杜甫의 성정에 근접한 시인으로 益齋 李齊賢과 포은, 두 사람을 꼽으면서 포은의 이 시구를 그 실례로 들었다. 『巖棲集』 권37, 「雜識」. “杜詩所以爲詩之至者, 不但以辭致之雄麗也. 其情性氣象, 發於倫理, 忠愛惻怛, 溢於言外, 非漢魏以來詞人所及. [···] 我東自羅麗名詩者多矣, 而此等語未易見. [···] 圃隱腹裏有書還讓國, 囊中無藥可延年, 眼爲感時垂泣易, 身因許國遠遊頻. 諸作近之.” 조근섭은 포은의 “이따금 성곽 남쪽 저자에서 술을 마시니, 내 호기가 오히려 중국 전역에 가득하다네(時來飲酒城南市, 豪氣猶能塞九州)”를 點化하여 “덧없는 인생에 굳이 영악한 삶을 살 필요가 없으니, 내 호기가 오히려 중국 전역에 가득하다네(浮生不必營三窟, 豪氣猶應塞九州)”라 읊조리기도 했다.

- ① “已將身許國，猶有夢還家” 黃慎，〈使日本時作〉·其一 미련¹¹⁸⁾
 ② “身因許國常輕死，語切匡時豈待詢” 李明漢，〈挽白沙李先生〉중¹¹⁹⁾
 ③ “身因許國寧辭遠，夢爲思鄉苦作牽” 車天輅，〈吳總兵 [惟忠] 提步卒四千入府〉 함련¹²⁰⁾
 ④ “身因許國輕如葉，鬢爲憂時半着霜” 李端相，〈次洪君實寄示韻〉 함련¹²¹⁾

작시 대상 인물의 우국충정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포은의 ‘身因許國’ 구법이 끊임없이 차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결연한 모습을 부각시키는 표현을 세 글자로 압축하여 덧붙였을 뿐이다. ③과 ④의 경우에는 하구에서 ‘爲[때문에]’로 ‘因’의 대를 맞춘 것까지 포은의 시편과 일치한다. 퇴계의 문인인 김부륜(金富倫)은 일본으로 떠나는 학봉 김성일을 전송하며 “응당 포은의 자취를 찾아야 할 터, 나라에 허락하여 멀리 노닐 몸이니”라 읊조린 뒤 포은의 시구를 주석으로 달았다.¹²²⁾ 포은 사행시가 조선 문인에게 학시(學詩)의 전범이자 시료의 원천으로 활용되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IV. 맺음말

포은이 활약한 14세기 후반은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며 외교적 긴장감이 팽배했고, 고려 조정에서는 일본과 명나라에 빈번히 사신을 파견했다. 이 가운데 현전하는 일본 사행 시록은 1377년 포은이 제작한 13수가 유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사행 시록 중에서도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다. 나홍유가 포은보다 먼저 방대한 규모로 일본 사행 시록을 엮어 소개함으로써 고려 문단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으며 본인 문집을 간행할 때 사행 시록까지 함께 편차했으나 현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말선초에 명나라 사행 시록을 남긴 주요 인물은 정도전, 이숭인, 권근, 이첨 등이다. 이들은 공히 이색의 문도이자 포은의 지우다. 특히 권근의

118) 『秋浦集』 권1.

119) 『白洲集』 권10.

120) 『五山集』續集 권2.

121) 『靜觀齋集』 권2.

122) 『雪月堂集』 권2, 〈送副使金士純〉미련. “應尋圃隱跡，許國遠遊身。[鄭圃隱〈奉使日本詩〉云，身因許國遠遊頻]”.

「봉사록」과 이첨의 「관광록」은 사행 일정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기에 용이한 자료다.

일곱 번의 사행에서 일본에 다녀온 것이 한 번이고, 나머지는 명나라로 향한 것이다. 여섯 번의 명나라 사행 중에 세 번은 외교적 마찰 탓에 입경하지 못했다. 남경까지 무사히 다녀온 사행은 1차 사행(1372), 5차 사행(1384), 6차 사행(1386)이다. 일본 사행은 2차 사행으로 1377년 9월에 이루어졌다. 120제의 포은 사행시는 『포은집』 권1에 실려 있는데 1372년, 1386년 명나라 사행과 1377년 일본 사행 때 제작한 것이다. 시기적으로 가장 늦지만 시편이 온전히 전하는 6차 사행 시록을 전반부에 수록하고, 일본 사행시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므로 맨 뒤에 편차했다. 1372년 1차 사행시는 순서가 정연하지 않아 면밀한 교감이 요구된다. 일본 사행시는 포은의 막내 동생 정도가 초록해놓은 것이고 6차 사행 시록은 서장관 한상질이 손수 기록해둔 것이다. 포은은 사행 노정에서 이국의 풍광을 만끽하며 작시에 몰입하여 완성도 높은 시편을 다수 제작했다.

포은은 귀국 직후 사행 시록을 엮었고 이것은 주변 문사들에게 폭넓게 읽히며 개별 작품에 대한 세세한 품평을 거쳤다. 따라서 여말선초 문사들은 사행 과정에서 포은의 시편을 염두에 두고 유사한 시제와 시상, 정조로 시편을 짓거나 혹은 차운의 형태로 포은의 작시를 계승했다. 그리고 이첨의 경우처럼 의도적으로 포은의 시구를 차용하거나 변용하기도 했다. 포은 사행시는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주변 인적 관계망을 통해 공식적으로 향유되며 확산된 것이다. 이들이 당대 문단과 정계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기실의 전형으로 칭해지는 시편은 대부분 일본 사행 때 제작되었다. 이국적 풍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되 평이한 구법 속에 공감각적 시상을 두루 담아낸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관풍찰속을 통해 일본의 풍속 중에 가장 이채롭고 이질적인 장면을 포착하여 낯선 미감을 창출하기도 했다. 이국의 풍토를 절묘하게 묘사한 포은의 사행시는 조선 문인에게 꾸준히 읽히며 시상과 시료 운용의 측면에서 일본 관련 작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거나 조선 문인은 포은의 기실 작법을 응용하여 그 외연을 더욱 확장시켰다.

사행을 통해 장부의 기개를 한껏 발산했던 포은은 호방한 작품을

다수 지었다. 호기로운 언표의 이면에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인 전대와 작시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 있다. 포은이 사행시에서 운용한 시어나 새롭게 창출한 표현 및 구법은 조선 문사에 의해 부단히 접화되고 응용되었다. 심지어 포은의 시구를 압축하거나 포은의 사행 자체가 시의 소재로 운용되기도 했다. 포은 사행시는 조선 문인에게 통시적으로 애독되며 학시의 전범이자 시료의 원천으로 활용된 것이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中國基本古籍庫.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역주 『高麗史』.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1987.

국역 『東文選』. 民族文化推進會, 1989.

홍찬유, 『譯註 詩話叢林』. 통문관, 1993.

안대회, 『對校譯註 小華詩評』. 국학자료원, 1995.

국역 『靑莊館全書』. 民族文化推進會, 1997.

국역 『海行摠載』. 민족문화추진회, 2008.

權近, 『陽村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金萬英, 『南圃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金富倫, 『雪月堂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金集, 『愼獨齋遺稿』.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金昌業, 『老稼齋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金訢, 『顏樂堂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南龍翼, 『壺谷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申緯, 『警修堂全藁』.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申欽, 『象村稿』.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吳允謙, 『楸灘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李景奭, 『白軒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李器之, 『一菴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李端相, 『靜觀齋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李明漢, 『白洲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李民宥, 『敬亭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李山海, 『鵝溪遺稿』.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李穡, 『牧隱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李晬光, 『芝峯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李崇仁, 『陶隱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李詹, 『雙梅堂篋藏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林象德, 『老村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鄭道傳, 『三峯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鄭夢周, 『圃隱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_____, 『圃隱集』(1903년 晉州 玉山齋 刊).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鄭文孚, 『農圃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鄭惟一, 『文峯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趙綱, 『龍洲遺稿』.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曹兢燮, 『巖棲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趙任道, 『澗松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趙泰億, 『謙齋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車天輅, 『五山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崔演, 『良齋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黃愼, 『秋浦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2. 단행본

박용운, 『高麗時代史』. 一志社, 1989.

3. 논문

고혜령, 「왜구의 침략과 정몽주의 일본 사행」. 『포은학연구』 8권, 2011.
 김병홍, 「포은 정몽주 사행시의 계량언어학적 접근」. 『포은학연구』 13권, 포은학회, 2014.
 김영수, 「麗末의 정세와 圃隱의 明·倭 使行詩 연구: 포은의 외교적 역량에 주안하여」. 『한문학보』 24권, 우리한문학회 2011.
 김영은, 「圃隱 鄭夢周의 使行詩 研究」,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박영주, 「포은 정몽주 시에 투영된 의상과 의경」. 『포은학연구』 10권, 2012.
 손승철, 「조선시대 ‘통신사’ 개념의 재검토」. 『조선시대사학보』 27권, 2003.
 엄경흠, 「정몽주 日本使行詩 研究」. 『동아어문논집』 창간호, 1991.
 _____, 「麗末 日本通信使의 使行과 送詩」. 『동양한문학연구』 제25집(동양한문학회, 2007).
 _____, 「圃隱 鄭夢周의 中國 使行詩에 나타난 自然現象의 意象 變化」. 『포은학연구』 9권, 포은학회, 2012.
 이승수, 「1386년 정몽주의 南京 사행, 路程과 詩境」. 『민족문화』 46권, 한국고전번역원, 2015.
 최해정, 「포은 정몽주의 사행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홍순석, 「포은 한시의 시어와 그 쓰임새」. 『포은학연구』 1권, 포은학회, 2007.
 _____, 「여말선초 奉明使臣의 行적과 시」. 『포은학연구』 10권, 2012.

국 문 초 록

본고는 포은 정몽주의 사행시가 당대 사행 문학과 조선 문인의 작시(作詩)에 드러운 영향을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포은은 사행 노정에서 이국의 풍광을 감상하며 작시에 몰입했고 이 과정에서 완성도가 높은 사행시를 다수 제작했다. 포은의 사행시는 귀국 직후 시록(詩錄)으로 만들어져 주변 문사들에게 폭넓게 읽혔으며 개별 작품에 대한 세세한 품평을 거치기도 했다. 따라서 여말선초 문사들은 사행 중에 포은의 시편을 염두에 두고 유사한 시제와 시상, 정조로 시편을 짓거나 혹은 차운의 형태로 포은의 작시를 계승했으며 의도적으로 포은의 시구를 차용하거나 변용하기도 했다.

포은 사행시는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주변 인적 관계망을 통해 공식적으로 향유되며 확산된 것이다. 기실(紀實) 작법을 구현한 시편은 대부분 일본 사행 때 제작되었다. 이국적 풍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되 평이한 구법 속에 공감각적 시상을 두루 담아낸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관풍찰속(觀風察俗)을 통해 일본의 풍속 중에 가장 이채롭고 이질적인 장면을 포착하여 낯선 미감을 창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작품은 조선 문인에게 꾸준히 읽히며 시상과 시어 운용의 측면에서 일본 관련 작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조선 문인은 포은의 기실 작법을 수용하여 그 외연을 더욱 확장시켰다. 사행을 통해 장부의 기개를 한껏 발산했던 포은은 호방한 작품을 다수 지었다. 포은이 사행시에서 구사한 시어나 새롭게 창출한 표현 및 구법은 조선 문사에 의해 무단히 수용되고 응용되었다. 심지어 포은의 시구를 압축적으로 형상화하거나, 포은의 사행 자체를 시의 소재로 운용하기도 했다. 포은 사행시는 조선 문인에게 통시적으로 애독되며 학시(學詩)의 전범이자 시료의 원천으로 활용된 것이다.

투고일 2017. 12. 15.

심사일 2018. 1. 24.

게재 확정일 2018. 2. 26.

주제어(keyword) 포은(圃隱, Po-eun), 사행시(使行詩, envoy poetry), 기실(紀實, recording facts), 호방(豪放, boldness and unconstrainedness), 시료(詩料, poetic materials), 구법(句法, poetic structure)

Abstracts

A Study on Jeong Mong-ju's Envoy Poetry

Kim, Deok-su

Po-eun began writing poems inspired by the foreign landscapes he encountered on his diplomatic envoy journeys, and wrote many well-developed poems. Po-eun's envoy poems were published as collections and widely read and critiqued by other poets. Subsequently, other envoys of late Goryo and early Joseon began writing poems using similar titles, poetic images, and modes on their own journeys, and succeeded Po-eun's work in the form of replying to his poems in the same rhyme, and also intentionally borrowing and transforming them. Po-eun's envoy poetry was widely enjoyed and circulated through personal networks, rather than remaining a sporadic and local product. Most of Po-eun's poems that are considered to have realized the Gwisil(紀實) writing technique were produced during his envoy to Japan. They are characterized by synaesthetic imagery in ordinary expression, while realistically describing foreign landscapes. Po-eun also created unique senses by capturing the most unusual and different scenes among Japanese culture and customs in his poems through Gwanpungchalsok(觀風察俗). His works greatly influenced the poems written in Joseon related to Japan in terms of poetic imagery and language, as Joseon poets continued to read his works and apply his Gwisil writing technique. Po-eun wrote several poems in a masculine style, and the poetic language and expressions he developed in his envoy poetry were widely utilized and applied by Joseon writers, who attempted to embody Po-eun's poetic phrases in detail and appropriate his poetic materials in their own works. Po-eun's envoy poems were broadly read by Joseon writers and utilized as a source of poetic inspiration and learning.